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 동 열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 (02)783-0071~2, FAX: (02)783-0073



지난 5월 26일 오전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용마산악회 주관 제3회 기별대항등산대회 출정식. 박동열 본부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제22회 속원의 종합우승

본부 용마산악회 주관 3회 등산대회 성황 준우승 제27회 · 3위 제21회 차지

제22회동기회가 승학산~엄광산~구봉산~모교 코스에서 펼쳐진 기별대항 등산대회에서 종합우승, 대망의 용마기를 품에 안았다. 준우승과 3위는 각각 제27회와 제21회가 차지했다.

지난 5월 26일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용마산악회 주관 동창회장 기 쟁탈 제3회 기별대항 등산대회는 동문·가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량을 겨뤘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용마산악회 주관 등산대회는 각 동기회의 결집된 역량을 과시하고 용마가족의 화합을 분출시키는 광장”이라며 “이 같은 등산대회가 본부동창회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력소로 더욱 작용하게끔 저번 확대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 달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동아대 승학캠퍼스 앞에서 구덕산 안부까지 2시간여 만에 주파한 후 점심식사에 들어갔다.

감투상 제13, 15, 31회 제33회 환경보호상 수상

이어 오후 2시 실시한 타임레이스에서는 동기회별 각 7~10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1위 제20회, 2위 제23회, 3위 제30회가 각각 입상했다.

특히 최다참가상은 평소 결집력이 강한 제22회동기회(27명)가 차지했으며 제13, 15, 31회가 감투상을, 제33회가 환경보호상을 각각

“협찬 감사합니다”

- △본부동창회=100만원
- △박동열(8회·본부동창회장)=타올 300장
- △한동대(9회·용마산악회 명예회장)=금일봉
- △제병민(13회·" 회장)=금일봉
- △정준수(15회·" 수석부회장)=20만원
- △하영수(17회·" 부회장)=20만원
- △채경석(20회·오복식품 대표)=100만원 상당 트로피 등 제공
- △강석근(20회·<주>우진 대표)=20만원.

모교동산서 단합회 가져

올해도 오기현·김병수 등 대회관리 전력투구

한편 이날 오후 5시30분 열린 시상식에서 재병민 대회장(13회·용마산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마산악회의 등산대회는 개인의 체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넓게는 동창회 발전과 용마가족의 일체감 구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애정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대회에 참가한 동문·가족들

은 이어 열린 단합회에서 소주잔을 나누며 피로를 풀었다.

이번 대회는 재병민 회장과 오기현(20회) 심판위원장 및 심판위원, 박홍규(24회) 의료위원, 이법렬(17회) 기록위원, 박종규(31회) 산악회 총무, 김병수(22회) 본부사무국 총무부장이 앞장서 크게 수고함으로써 더욱 알차게 치러졌다.

받아 동기회의 명예를 선양했다. 이날 선수단은 오전 10시30분 장정에 돌입했고 승학산(11:50)~구덕산 안부(12:50-점심식사)~타임레이스팀 먼저 출발(14:00)~꽃동네(14:30)~엄광산(15:30)~구

봉산(16:30)~경남교 체육관 앞골인(16:50)에 이어 40분 동안 실시한 장비 등 최종검사(16:50~17:30)를 받은 후 단합회식(17:50~18:50·뷔페식)을 가졌다.

재경동창회 기별야구대회 6월 2일 개막 팡파르

재경동창회 주최 제34회 기별대항야구대회 개막식이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30분 한빛은행 도농야구장에서 열린다.

이상택 재경동창회장(13회·효산의료재단 이사장)이 주재하는 이날 개막식은 A조(제19+21회~33회) 12개 팀과 B조(34회~47+48회) 12개 팀 등 모두 24개 팀 선수와 응원 동문·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식 날에는 식전에 제35-41

회(10:00), 식후에 제39-45회(12:00)·제28-31회(13:30)·제44-47+49회(15:00)·제36-37+38회(16:30) 등 5게임이 벌어진다.

올해 대회는 오는 6월30일 결승전을 치른다.

경남중고동창회 기별야구대회는 어느 동창회에서든 흥내낼 수 없는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로, 용마가족의 역량 결집과 화합을 확산하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만큼 올해도 기대가 크다.



지난해 재경동창회 기별야구대회 시상식.

제19+21회 등 5팀 16강 선착

재경 기별야구 첫날부터 불꽃 튀는 접전

폭발적인 타선을 자랑하는 제19+21회 합동회와 제31회가 지난 5월 26일 중앙대 안성구장에서 개막식(6월 2일)에 앞서 막을 올린 재경동창회 주최 제34회 기별대항야구대회 첫날 경기에서 각각 강호 제23회를 8-1로, 제29회를 10-9로 물리치고 서전을 장식, 16강전에 동반 선착했다.

또 이날 제32회는 다크호스 제24회를 따돌렸고, 제37+38회 합동회는 제34회를 13-6으로 물리쳤으

며 제30회는 제25회를 9-5로 제압하는 등 각각 16강전에 합류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입장식에서 이상택 재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마가족의 결속 강화와 화합을 확산시키는 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별야구대회를 우리가 더욱 아끼고 활성화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문·가족들은 동기회별로 점심식사를 하며 여유회 분위기를 한껏 나눴다.

印刷에도品格이 있습니다!

값싼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편집디자인에서 납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최고수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도서출판
- 자서전
- 회고록
- 회사사보
- 단체회보
- 회원명부
- 카타로그
- 팜프렛
- 전단지
- 서식봉투
- 명함
- 스티커

高品質 印刷의 名家 **인쇄마당**
대표 安 豊 (제28회)

E-mail: inshemadang@korea.com
www.inshemadang.webhard.co.kr
부산시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전화: (051)464-6626
(부산우체국 건너편 대교빌딩202호) 팩스: (051)464-6826

오늘은 고향 가는 날. 그곳에서 시제가 열려서이다. 고향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냈고 성장기에 자양분을 공급받은 곳 이어서 항상 짙은 그리움속에 있다.

이곳을 떠나 주로 대도시에서, 그리고 때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쓸쓸해지거나, 괴로울 때는 고향의 풍경들과 추억들을 그려보면 그럴 수 없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더구나 설이나 추석 때, 일가친척네 혼례나 초상 때, 친구들 집안 잔치 때... 등으로 고향을 찾을 때는 어찌 그리 마음이 설레는지 모른다.

나의 경우, 이 같은 그리움과 즐거움은 우리 용마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임과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풍경과 추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기회의 정기총회나 월례회, 송년회나 야유회 등은 물론 동기생을 비롯, 선·후배 집안의 길흉사 등의 소식을 듣고 발길을 그곳으로 옮기면 언제나 고향으로 가는 기분이 돼 '경고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진다. 그리고 나는 본부동

시 평

허범도
제22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청장



안태고향과 마음의 고향

창회에서 치르는 정기총회나 기별야구 대회나 용마의 밤 등 크고 작은 행사에는 웬만하면 고향 가는 기분으로 참석을 해 선·후배와 친구 사이를 돌며 쌓았던 정을 풀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은 고향의 풍경들과 대치된다.

고향의 뒷산, 들판의 저수지, 시원히 흐르는 집 앞 개울물 등을 못 잊는다.

할머니의 그 주름진 손으로 쥐어주던 한겨울 밤의 빨간 홍시, 시커멓게 탄 밀을 태워 호호 불며 먹던 밀서리 등 헤아릴 수 없는 추억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때의 고향은 그대로인데, 길은 대로로 잘 뚫려 있고 마침 시제철이라 시골가는 길은 온통 차로 북새통이다. 어릴 때 만난 고왔던 아주머니들은 이미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고, 기억에 남아

있는 농로도 어느새 포장되어 신작로가 되어버렸다.

언제나 높아 보였던 집안의 어른, 아저씨(아재), 할아버지(할배)들의 이마에는 굵고 깊은 주름살이 패여 세월의 깊이와 인고의 세월을 각인하고 있었다.

동창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배님들은 10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유수 같은 세월'을 실감하고 몇 년 전에 만난 후배들도 따라 늙어오는 것 같아 안쓰럽다. 이처럼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면 안태(安胎)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기분 이어서 그때마다 즐겁다.

훌쩍 커버린 응석받이 조카들의 키만큼이나 성장해버린 연륜의 편린 속에, 세월의 격동 속에, 우리는 무작정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어느 것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안태고향과 동창회라는 '마음의 고향'은 같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선·후배 동문님들이여,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길을 잡시다!

오거돈(21회) 부산시장 권한대행

오거돈 동문(21회·사진)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재임 중 최근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는 안상영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오는 6·13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함에 따른 것. 오 동문은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시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오 동문은 청와대 비서실·부산



시 재정관·내무국장·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오 동문은 현재 동기회장을 맡아 동문들의 유대 강화와 동창회의 조직 활성화에 헌신하고 있으며, 시장에 관한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풀어주는 데 애쓰고 있다.

한병조(13회) 로터리 '釜山鎮' 회지 大賞



한병조 동문(13회·본부 사무국장·사진)은 최근 로터리 부산진클럽 후보위원장을 맡아 회지 '釜山鎮'의 편집방향과 내용 등을 쇄신, 클럽 내 회지 컨테스트에서 '釜山鎮'이 대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 동문은 로타리클럽에 14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소속 부산진클럽 회장직(1999~2000년)을 맡은 바 있다.

양정우(14회) 여성권의 유공 대통령표창



양정우 동문(14회·일신기독병원장·사진)은 지난 4월 1일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있는 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표창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양 동문의 이번 수상은 그간 직원 모집 및 채용시 성차별을 철폐했고 여성 불이익 추방·인적 자원 양성·근무여성 육아문제 해결·직장 내 어린이 집 운영 등 공로가 인정된 것.

이재철(21회) 스위스서 귀국...목회 활동



이재철 동문(21회·목사·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한인 교회에서 지난 3년간 하나님을 섬기다가 최근 귀국,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국의국어대 불어과와 장로회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각각 졸업한 이 동문은 스위스로 떠나기 전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목사·장로 임기제 공식 논의 전) 약속한 '목회 10년째 되는 날 담임목사직 사임'을 실천한 목회자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하복의 목회',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등이 있다.

7월 7일 기별바둑대회

용마기우회 총회 한병조 회장 유임

본부동창회 용마바둑회는 지난 4월 22일 오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어 한병조 회장(13회·본부회장 겸 사무국장)을 유임시켰다.

또 총회는 임원 개선에서 고문으로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과 강철민 동문(11회·프로 8단)을 각각 추대했다.

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제2회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를 7월 7일 개최 △회칙 개정(회

장 및 임원 임기 1년·연임가능) △임원 개선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 △회장=한병조(13회)
- △부회장=문운용(14회) 이추남(15회) 박종봉(16회) 김지창(17회·신임) 정상건(23회) 백승엽(27회) 이상용(29회·신임)
- △감사=강수경(21회)
- △이사=기별 기우회장(당연직)
- △총무이사=임용수(13회)
- △총무=임강택(22회) 백승이(27회)
- △부총무=조남훈(34회) 이성대(40회) 고승성(40회).

등산대회 등 사업계획안 확정

용마산악회 정기총회...신임회장 제병민(13회)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제일위패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제병민 부회장(13회·동진개발 대표·사진)을 선출했다. 한동대 회장(9회)이 주재한 총회는 6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주요행사 및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 임원 개선을 통해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어 같은 달 26일로 내정된 동창회장기재달 제3회 등산대회 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 △명예회장=한동대(9회)
- △회장=제병민(13회)
- △부회장=정준수(15회·수석) 하영수(17회) 김대원(20회) 오거돈(21회) 정상수(22회) 박수갑(23회)
- △기획이사 겸 산행대장=오기현(20회)
- △감사=최충락(14회) 이웅길(32회)
- △총무이사=박종규(31회).

내년 홈커밍준비위 구성 등 제37회, 현안문제 심의

제37회동기회는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오죽항 조방점에서 4월 월례회를 열었다.

김정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는 내년 홈커밍데이행사를 대비해 회장단을 새로 구성, 준비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다가오 가을에 부산고 제36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계·시·판

제10회재경동기회

청계산 오르고 바둑·골프도 경연회(제10회재경동기회)의 여러 친목회는 '5월학급수업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공부(?)했다.

강남학요회는 지난 5월 28일 낮 12시 동기회 사무실에 모여 정을 나눴고, 사내조아회는 26일 오전 10시 안양 지하철 인덕원에서 만나 청계산으로 산행을 했으며, 일급회는 24일 오후 6시30분 지하철 마두역 8번 출구 앞에서 만나 송탄 부대찌개집으로 옮겨 소주잔을 기울였다.

또 경록회는 23일 자유CC에서 올해 첫 골프대회를 치렀고, 여의도회는 낮 12시 옛골에서, 세보리회는 18일 오후 6시 전 주관에서 각각 회식을 했다.

그리고 안산회는 14일 낮 12시 안산 중앙역 앞 다리목 추어탕집에서 점심회식을 가졌고, 동수회는 11일 오후 1시 동기회 사무실에서 바둑대회를 열었으며, 강북회는 7일 낮 12시 중앙극장 앞 필래옥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울산지역동창회

6월 15일 새 회관 개관식

울산지역회 회관 개관식이 6월 15일 오후 5시 울산 무거2동 울산상고 앞 남운아파트 상가 2호 회관 현장에서 김형수 회장(14회·대호산업 대표) 주재로 열린다. 이날 개관식은 6월 용마의 날 행사와 겹하게 된다. 울산회의 새 동창회관은 역대 용마가족의 뜨거운 후원에 힘입어 신정1동의 3년계약의 전세회관 신세를 벗고 구입한 것이어서 뜻이 깊다.

회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조장래(23회)=컴퓨터 1대·PC용 책상 1세트 △김광경(33회)=에어컨 1대 △김인수(35회)=대나무 방석 20개·쇼파용 등받이 5개 △박철중(36회)=벽시계 1점.

가족동반 체육대회 연기

울산회는 오는 6월 2일로 예정된 '2002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연기, 오는 10월 3일 울산상고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경기는 손바닥기 야구 죽구 줄다리기 가족게임 공널기 이어달리기 훌라후프들리며달리기 등 8개 종목으로 기량을 겨룬다.

제15회동기회

최병우 회장 1년간 유임 삼팔회(회장 최병우)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원미가에서 제46차 월례회를 열어 최 회장 과 조이랑 총무를 유임(임기 1년)시켰다. 어버이날행사를 겸한 이날 모임에는 21명(남자 14명·여자 7명)이 참석했다.

삼오회 출범...회장 손부홍

'삼오회'로 명명된 3·5만창회 출범식이 지난 5월 3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동대신동 오막집에서 손부홍 초대회장과 김판열 박찬호 공중총무, 김중한(대구) 이현우 동문(울산)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수달 5월마다 열리는 삼오회는 앞으로 회원발굴운동을 적극 전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일오기우회 이추남 회장 과 정청용 총무, 동기회관 조일랑 실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일행은 손회장 특찬

금(30만원)으로 뒤통이를 즐겼다.

이화회 신입회장 이동근

이화회는 지난 4월 9일 동주북국집에서 이추남 회장 주재로 4월 정례회를 열어 이동근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뽑았다. 이날 모임에는 강부남 동문 등 9명이 참석했다.

제21회재경동기회

경부합동산행 덕유산서

제21회재경동기회 주관 제6회 경부합동산행대회가 오는 6월 6일 서울과 부산의 동문·가족 7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덕유산에서 펼쳐진다. 이날 일행은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밖에 있는 스포타임 앞에 대기 중인 2대의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1" 일호프집 재밌네요

울산지역동창회가 조직 활성화의 기금을 조성하고 용마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1일호프집'이 수많은 동문·가족 등의 뜨거운 호응으로 성업을 이뤘다.

울산회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동안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 앞 '인터넷호프집'에서 김형수 회장(14회·대호산업 대표)을 비롯, 동문과 부인, 친구 친지 연인 등 연인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호프집'을 운영, 화합의 자리를 펼쳤다.

동문 등 160여 명 신나는 한잔 울산회, '사랑의 부라보' 주관 수익금 조직활성화 기금으로

울산회가 이날 올린 수익금은 조직활성화와 동문·가족 유대강화를 위한 '종자돈'으로 쓰게 된다. 울산회의 이날 잔치는, 동창회 내 공식 조직으로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문을 열자마자 성황을 이뤘고 문을 닫을 때까지 내내 발길이 붐볐다.

미니친목회 '장학햇불' 활활 10년간 매년 100만원씩 쾌척

제15회동기회 화친회 모교 후배 계속 돕기로 여력 좋으면 수혜자 늘려



한 동기회의 조그만 친목회가 10년 동안 모교 재학생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해와 화제가 되고 있다.

'훌륭한 후배 만들기'에 10년 동안 정성을 쏟아 오고 있는 주인공은 제15회동기회 화친회.

지난 4월 9일 저녁 소도일식집에서 4월 정례회를 연 화친회는 김관열 회장(미래통상 고문·사진)

과 김종태 총무를 유임시켰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경남고 재학생 1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온 이 뜻을 앞으로 계속 베풀어나가기로 결의했다.

김관열 회장은 "회원 각자의 여건만 좋아진다면 수혜자의 수를 더 늘릴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두 16명(김병배 김양정 김범준 김원식 김정길 김종태 김현 김관열 박소남 박찬호 안충용 유지영 이승남 임병철 정준수 최 욱)이 참석, 이 같은 뜻에 흔쾌히 동조했다.

내년 4월 26 ~ 27일 흠커밍 일정 등 심의

제27회재경동기회 월례회

제27회재경동기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 현풍할매곰탕집에서 신입회장 선임 후 처음으로 집행부와 의 상견례를 겸한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동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올해 행사 계획안 △최근 출범한 골프회(회장 손정식·총무 이기봉)를 비롯한 클럽별 활동보고 △내년 봄 흠커밍데이행사 예산 조성을 골자로 한 운영안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특히 내년 흠커밍데이행사 경우 △일정을 4월 26~27일 이틀간으로 △예산 모금액 중 65%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동기회 운영 기금화 △개인별 모금 구좌(1구좌 10만원)는 3~10구좌 등으로 할 것을 논의했다.

태종대 유인등대 밝힌 '사랑의 등대불'

등대회(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 등 관계 동문 친목회) 용마가족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태종대 유인등대를 찾아가 이곳 직원·가족을 위문하고 가족대상 사생대회와 백일장을 여는 등 뜻깊은 행사를 베풀어 다른 직능회의 부러움을 샀다.

김 조 회장(16회·천우통상 대표이사)이 이끌고 있는 등대회 동문·가족 80여 명은 지난 5월 5일 제80회 어린이날을 맞아 '예년

등대회 용마가족 80여 명 어린이날 행사 맞아 위문

지속적 교류 위해 기념식수

사생대회·백일장 열어 대상 7세 김명주양 수상

의 근교 수련원 놀이 위주 행사를 과감히 탈피, 태종대 유인등대를 방문해 등대를 지키는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기념품을 전달, 노고를 위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로 방문이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김 조 등대회장은 "등대회와 태종대 유인등대 간의 교류를 지속화할 것"을 약속하며 기념식수를 했고, 등대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유인등대측에서는 용마가족들을 위해 등대현황 소개와 주변을 견학시키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특히 이날 등대회는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사생대회와 백일장을 열었는데 대상은 '유인등대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김득수 동문(41회)의 장녀 김명주 양(7세)이 받았다.

용마가족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속에서 '등대지기' 등을 합창하면서 올해 어린이날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게끔 계획을 세운 등대회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상을 받은 김명주 양은 "밤바다의 냇길을 바로 알려주는 데 고생하고 있는 등대 직원들의 노고와 가족들의 뒷바라지가 너무 훌륭하다"고 말했다.



태종대 유인등대를 방문, 어린이날 행사를 치른 등대회 동문·가족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음들 추스려 화합·결속 촉진"을

제16회동기회 정기총회...이체언 회장 선출



제16회동기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대청동 옥정프라자 고궁뷔페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회장에 이체언 동문(인제대 교수·사진)을 선출했다.

운영식 회장(세동 대표이사)이 주재한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종국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돼 사업 및 운영 결산보고와 흠커밍데이행사 결산보고를 각각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특히 총회는 흠커밍데이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데 크게 기여한 운영식 회장과 강종국 사무국장 등의 노고를 박수로 치하했다. 그리고 마음들을 추스려 화합과 결속을 촉진시키는 데 모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회장=이체언 △부회장=김재승 김정균 박종덕 정영일 하홍근 △감사=황규정 △사무국장=강종국.

제21회 오거돈 회장 유임 사랑방에 당구대 설치키로

제21회동기회는 지난 5월 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 사무실(금복집)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오거돈 회장(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유임시켰다.

오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 및 예산안·5월 중 사무실 내 당구대 설치안·5월 25일 친선 바둑대회안·임원 개선 등 주요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오 회장은 권오균 조현영 총무를 재선임했다.

25이수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이명철 우승 샷

계영성 동기회장은 시상식 격려사를 통해 "각 서클의 활성화가 동기회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25이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화합과 결속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회가 끝난 후 임원 및 선수들은 저녁식사를 겸한 단합회를 열어 우정을 돈독히 했다.

제13회 동기회 임원명단

고 문 김상한 김향운 변종길 손재우 송문일 이범경 이철세 이성빈 오원수 장 청 최번영 한병조 허갑도 홍창수 정문화 정철기

회 장 구창덕

부회장

박영충(수석부회장) 강귀동 강정문 강종원 고송구 권영채 김수일 김신부 김치득 김영길(송정) 김한규 김홍철 남영기 박종택 박건일 송창식

안준수 오한수 이용웅 이일희 정삼영 제병민 조달근 차영일 최영재 황선웅

이 사

강수민 고시준 공한국 권오덕 권순길 김간웅 김동일 김말남 김무조 김문웅 김민철 김백조 김봉진 김부조 김부윤 김상치 김소웅 김수웅 김승언 김양일 김영길 김영문 김영식 김 일 김초삼 김장웅 김윤홍 김정성 김정일 김정태 김춘길 김태웅 김학대 문 창 문대조 문기찬

박국언 박길만 박두만 박경오 박민보 박봉도 박안남 박안호 박양웅 박원길 박주열 박진태 박찬웅 박정길 박호지 박홍일 박홍표 배대결 배영봉 배판규 백명조 백원호 신창도 신하근 안성문 안수웅 안종일 오상찬 옥종환 유수종 윤기갑 윤진규 이경준 이규채 이민부 이경준 이삼상 이영현 이원찬 이정웅 이종달 이종두 이종영 이태랑 임용수 장미추 장 영 장병길 장위추 장영길 장영덕 정덕치 정연호 정영일 정영화 정은섭

정진화 조용갑 조원석 최박지 최영환 최상욱 한병우 허남식 허창휘

감 사 서증학 신민철

총 무 문형재 문현길 송영석

재경동기회

회 장 김종의 총 무 서시주

△ 동기회 지역 및 취미모임 경용회 회장 손재우 총무 장 청 금동회 회장 김장웅 총무 이규채 바다회 회장 박영충 총무 박진태 한삼회 회장 임용수 총무 문형재

경천회 회장 배영봉 총무 정영화 기우회 회장 조원석 총무 임용수 산우회 회장 공한국 총무 이규채 테니스 회장 이태랑

△ 동기회 각 지역 회장

마창지역 회장 노일웅 울산지역 회장 심진영 김해지역 회장 최태환 진해지역 회장 최 혁 충무지역 회장 박일웅 진주지역 회장 이병한 대구지역 회장 조성호 포항지역 회장 정노상

9회 정기총회 45명이나
신임회장 신도수 선임



제9회동기회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 17층 뷔페월드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신도수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배종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5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신도수
△부회장=한동대(수석) 박종근
신탁현 이영구 전국조
△감사=배종태 김수안
△총무=최성욱.

경구기우회 바둑대회
신임회장 박종근
우승 박장석·김정권

경구기우회(제9회동기회 바둑모임)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사무실에서 제37차 바둑대회 겸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박종근 동문을 뽑았다. 또 총무에 최성욱, 간사에 박장석 동문을 각각 지명했다.

이상준 회장이 주재한 이날 바둑대회에는 20여 명이 참석, 대국열전을 벌여 A조에서는 우승 박장석·준우승 최성욱 동문, B조에서는 우승 김정권·준우승 최현오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국 후 세일초밥집에서 열린 단합회에서 참석자들은 2년간 헌신한 이상준 회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연수 우승컵 안아

경륙회 올해 1회 골프대회
안우만·한규상 식대 등 부담

제10회재경동기회 골프모임인 경륙회는 지난 4월 25일 자유CC에서 올해 제1회 친선골프대회를 열었다. 서진홍 동문 등 22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김연수 동문이 우승컵을 안았다. 또 메달리스트는 김창덕·준우승은 서창덕·3등은 김상태·통계스트는 이근태·니어리스트는 정인호·행운상은 한규상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의 식사비는 행운상을 받은 한규상 동문이, 상품비는 안우만 동문이 각각 전액 부담했다.

서울棋士 초청 '부산手談' 성황

제15회 일오기우회
경부바둑대회 주관

제15회동기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주최한 이틀 일정의 경부합동 바둑대회를 열어 '수담(手談)잔치'의 진국을 맛보게 했다.

제15회(회장 정창환·변호사)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일오기우회(부산) 주관 경부합동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영예의 1등 김종웅 차지

이날 오전 10시30분 행사를 주재한 이추남 일오기우회장의 대국선언에 이어 벌어진 불꽃 튀는 반상열전에서 영예의 1등은 김종웅(서울)·2등은 유병용(부산)·3등은 나정연 동문(서울)이 각각 차지했다. 또 김신부 허광길(이상 서울) 김삼용 유승덕 허두영 동문(이상 부산)이 각각 입상했다.

이날 대회는 먼저 A·B·C·D 4개 조 리그전을 벌여 각 조 1, 2 위 자리를 뽑고 이들이 치른 토나멘트 결승대국을 통해 1~3위를 결정했다.



제15회동기회 경부합동바둑대회. 4월 27-28일 부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일오기우회가 서울 보름기우회를 초청,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의 보름기우회(당시 회장 이승우)가 부산의 일오기우회 회원을 초청, 즐거운 대국을 마련하고 환대해준 데 대한 답례이다.

서울 16명·부산 30명 참석

이날 경부 동문들은 대국이 끝난 후 한아름의 선물을 안은 채 일미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단합회를

즐겼고, 이 자리에서 조돈욱 보름기우회장은 일오기우회 발전기금으로 30만원을 전달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송도 바닷가에서 전야제
싱싱한 생선회에 훌쩍 반해

한편 대국 전날인 27일 저녁 부산 송도 서울호텔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서울 동문 16명(강두성 김신부 김종웅 나정연 박호문 서병길 서영진 안신박 이정용 정 총

조돈욱 최광열 최태치 함신치 허광길 홍익찬)과 부산 동문 30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그토록 먹고 싶던(서울 동문 경우) 싱싱한 생선회가 그득 차려진 전야제는 정창용 일오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돼 이추남 부산회장 환영사, 조돈욱 서울회장 답사, 최태치 보름회 총무의 서울 친구 소개, 축배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일행은 공식행사 후 자리를 옮겨 동기회관 옆 단란주점에서 뒤풀이를 만끽했다.

일오산우회 20명
정족산 봄산행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회장 김종광)는 지난 4월 21일 경남 양산 근교 정족산에서 동문 16명과 부인 4명 등 모두 20명이 어울려 봄산행을 했다.

정준수 산행대장의 자상한 리더로 심신을 단련한 일행은 산행 후 부산에 돌아와 온천장의 할매곰탕집에서 정 산행대장과 한해수 동문이 회사한 특찬금(각 10만원)으로 해단식을 겸한 소주파티를 벌였다.



창립기념 동산대회를 마친 제12회 산우회 회원들이 꽃동네 산마루에서 막걸리파티를 열고 있다.

열들산우회 창립기념 등산대회
"구덕산품이야 아직 겁 안나네"

제12회동기회 열들산우회는 지난 5월 11일 구덕산에서 남기용 산우회장(동기회장 겸임)이 리드한 창립기념 등산대회를 열었다.

이날 산행에 나선 20여 명의 초보산꾼(?)들은 오전 11시 모교 정문을 출발, 대신공원~구덕산~꽃마을 코스에서 맘을 한껏 흘렸다. 산꾼들은 "다른 동기회보다 훨씬 뒤늦게 창립했지만 내실을 다지는 산우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일행은 꽃동네 산마루집에서 점심식사를 겸한 첫 단합회를 열고 산우회의 저변확대에 각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원한 막걸리에 목을 축이고 오리백숙으로 배를 채우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든 일행은 "아직도 힘은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근교 코스에서 좀 단련이 되면 장거리까지도 도전하자"며 기염(?)을 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산사랑' 상에 금일봉까지 "덩더쿵"

재경경팔회, 관악산 산행대회서 노익장 과시

△제8회재경동기회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가 지난 4월 14일 관악산에서 열린 재경동창회·용마산악회 공동주최의 산행대회에서 '산사랑' 상과 금일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 13명(부인 1명 포함)이 참석, '우량참석회'로 평가받아 상과 상금을 수상.

△바둑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5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밖 30m거리에 있는 일품기원에서 5월 정례대국을 벌였다. 김진석 동문이 제일 먼저 나왔고 동기회장인 강성태 동문이 끝져서 나타난 이날 대국에서 윤태영 동문이 우승을, 손대근 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골프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지난 5월 2일 안성CC에서 7팀(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월례회 겸 2001년 월 우승자 대상 '왕중왕' 선발 결승전을 열었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박지병(90타·8)·준우승 김진석(89타·7)·3등 전영배(80타·4)·니어리스트상 윤태영·행운상 이유환·신설 첫버디상 강성태 동문(13번홀에서 생애 첫 버디)이 각각 수상.

여자부는 우승 김정희(85타·2)·준우승 신성자(88타·3)·니어리스트상 장은아·행운상 정종욱씨가 각각 수상.

이날 우승한 박지병 동문과 김진석씨는 순금 골프공과 크리스탈 우승패 및 부상을 각각 받았다.

산우회 13명
'우량 참석회'
인정받아 수상

팔선회
5월 바둑대회
윤태영 우승

'01 월 우승자
대상 결승전
박지병·김진석
왕중왕 등극

제14회동기회 임원명단

고 문
문운용 손광웅 신길송 강주신
박병선 윤영현 류총일 박효건
이길미 정시영 노수덕 한규환

회 장
이종민

부회장
황원규 김용호 강돌이 김영대
양정우 신용진 정현구 조영봉
한창수

총 무
박창홍

이 사
공철성 구자신 김 관 김건호
김상수 김영식 김영우 김이길
김익명 김우구 김재도 김철언
김청수 김홍관 김형수 문성필
박문남 박중철 박춘제 박종문
박삼현 박용화 반미태 서정영
신현호 염상주 유정호 윤용남
이동식 이명재 이승오 이영준
이광언 이진우 이훈일 장삼식

정상진 정삼영 정의광 조규태
조대무 최성웅 최충락 하광진
황준성

감 사
안상환 박의종

<각서를 회장 총무>
낙석회 회장 장삼식
일사회 회장 유정호
등산회 회장 조대무 총무 양일남
등대회 회장 김청수
경조회 회장 한규환

경사회 회장 박삼현 총무 반미태
의약회 회장 이승오 총무 양정우
보수회 회장 박효건 총무 황준하

재경동기회
회장 조규항 총무 오태홍 강휘주

재울산동창회
회장 김형수 부회장 강호일
이사 장원주

재거제동창회
회장 윤용남 고문 손광웅 조규태

5년만의 재회 ㄱ 수학여행 잘 왔네 ㄱ 귀영

제8회동기회 부산·서울 동문들이 5년여 만에 전북 김제시 근교 금산사에서 만나 모두들 "수학여행 참 잘 왔다"며 싱글 벙글 벙글 웃음을 띠었다.

지난 5월 16일 낮 12시, 김봉길 회장이 인솔한 부산의 용마가족 43명(부인 10명 포함)은 절골에 먼저 와 있던 재경의 강성태 회장 등 31명(부인 11명 포함)과 반가움을 나눴다.

후백제 왕 건훤이 아들에 의해 유폐됐던 곳이라는 금산사를 둘러본 일행은 버섯전골로 유명한 호박정 식당에서 단합회를

철순 앞둔 제8회동기회 경부 동문·가족들 전북 김제 금산사서 랑데부

열었고, 경부 간 서로 마련한 선물들을 주고 받았다. 이어 김봉길·강성태 부산 및 서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소줏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특히 점심식사 후 열린 버라이어티쇼(?)에서는 서울 부인들의 감칠맛 도는 합창 자랑이 '은방울자매'나 '핑클'을 뺄 정도로 일품이었다.

철순고개를 바라보는 동문들

은 어찌 그리 할 말들이 많은지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오후 2시30분 교가를 합창하고 석별의 정을 나눈 동문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부산과 서울로 각각 향했다. 이날 많은 선물을 안겨준 김자선 동문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편 서울 동문·가족들은 귀가길에서도 '달리는 단란주점'을 열어 '경팔회보배' 배주원 동문의 배꼽 터지게 하는 재담에 지루함을 잊었다.

분당에서 춘향골 남원주어탕을 맛있게 먹은 후 작별한 일행



금산사 미륵전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서울·부산 용마가족들

은 이날 모임을 위해 특찬한 강성태 회장을 비롯, 김호석 김영학 노재복 박재범 이영창 이창근 이유환 정상현 지창수 홍기성 등

문 등과 야유회 준비를 위해 시종 수고한 이영창 동문의 부인에게 박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육산악회 동문·가족들이 1박2일 일정의 주왕산 산행 후 기념촬영

"'60고개' 서니 주왕산 오르기 꽤 힘드네"

일육산악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김찬문 뵙아

제16회동기회 일육산악회는 지난 5월 18~19일 1박2일 2002년 정기총회 기념 산행대회를 경북 청송 근교 주왕산 일원에서 펼쳤다. 19일 산행을 마친 일행은 귀가길

에 경북 감포항에서 저녁식사 시간을 틈타 정기총회를 개최, '새 술은 새 부대에' 뜻으로 임원을 개설했다. 신임회장에 김찬문 동문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 이겸일·감사 손송방·산행대장 서태복·총무 최정일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길정 회장이 주재하고 서태복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은 이번 산행대회에는 부부동반 35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 첫날인 18일 오후 6시30분 청송의 달기약수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저녁식사를 겸한 전야제를 치렀다.

뒷날 오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주왕산 산행을 했고, 이어 영덕(점심)~주남지·옥계계곡 관광~감포항(저녁 겸 정기총회)~경주 코스를 달려 밤 10시 부산에 도착했다.

4월 산행 감암산에서 합천 이명수 막걸리 선물

한편 일육산악회 4월 산행은 지난 4월 21일 경남 합천 근교 감암산(모산재)에서 열렸다.

이번 산행에는 합천의 이명수 동문이 진한 막걸리를 선물해 얼큰한(?) 추억을 남기게 했고 대구의 채경일 부부와 강양수 동문 등 17명이 참가했다.

도시의 찌든 때 숲속서 씻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바람'

제39회재경동기회 가족동반 봄야유회

제39회재경동기회 봄야유회가 지난 5월 18~19일 이틀간 경기 광주 시 퇴촌면 근교 경희대 숲 속 체험학교에서 열렸다.

신보성 회장이 주재한 이번 야유회는 동문·가족 50여 명이 참석, 마음을 숲 속에 맡긴 채 친교를 펼쳤다.

일행은 첫날 전야제에서 삼겹살 및 오징어 숯불구이와 감자 요리, 갖가지 과일 등으로 차려진 소주 파티를 신나게 연출했다.

신동관 총무의 알뜰살뜰한 진행과 보살핌으로 '신바람캠핑'이 되자 남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고마움을 잊지 못했다.

첫 가족동반 산행대회 원형교사서 추억 되새기고

제41회동기회 가족동반 등산대회가 지난 5월 19일 모교~대신공원~구덕꽃마을 코스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류지섭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기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데다 '모교 방문'을 겸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배로 컸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숲 속의 아빠 모교 너무 아름답다워요"하며 신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오전 10시 모교(경남고) 정문 앞을 출발한 일행은 학교 돌담길을 돌아 대신공원~구덕산~체육공원~내원정사를 거쳐 꽃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동동주와 오리백숙 등으로 허기를 달랜 일행은 다시 모교로 올라와 원형교사인 덕형관의 옛 교실 등에 들러 추억을 되새겼다.

어린 자녀들 "아빠 모교 너무 좋아요" 신바람 피워

이철산우회(제27회동기회) 제139차 산행대회가 지난 5월 12일 경남 서창 근교 대운산(782m)에서 열렸다.

강봉호 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은 날씨가 덥다는 핑계를 내세워 전과 다름없이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는 재미'를 잊지 않았다.

산행 들머리는 지난번의 임

대운산~장안사 땀냄새 술냄새

이철산우회 139차 산행

도 대신 평탄하고 신록 짙은 길을 택해 오후 1시경 정상에 올랐다. 이곳에서 시원한 '지한표' 막걸리로 갈증을 풀고 뷔페식(?)으로 배를 채웠다.

하산길은 2시간이상 발품을 팔아야 하는 장안사를 택했다. 좌천역까지는 걷다가 마을버스를 탔다가 하며 땀을 흘렸다. 이날 따라 목욕을 사절한(?) 일행은 '일찍 귀가'를 결의했는데, 사하담 4명은 결의를 지킨다며 바로 부전역으로 갔으나 해운대팀과 남구담은 변심, 해운대 선지국밥집으로 빠졌다.

제24회동기회 임원명단

본부동창회	동기회	이병훈	부회장	정태운	이 사	문섭제	양무도	장현동	재경동기회
		임민호	강동우	최승국	강성철	박요한	양인석	전문식	회장 김병수
부회장	고 문	정명환	구자웅	최우림	권상철	박재선	원동희	전상현	총무 이증구
박홍규	김명배	최중식	공성철	최원주	김규철	박창호	여성근	정기춘	
최중식	박경재	한승철	문휘영	최태영	김도현	박해성	이영제	조재진	
	박홍규	한예식	안상수		김무성	배상욱	이재성	주승환	직능회
이 사	서보호		류홍석	감 사	김성권	백산흠	이한선	주점권	
김경남	서정대	회 장	이창무	김인철	김영식	손성호	임병용	최동우	골프(24골프) 회장 여철우
문휘영	송유돈	김경남	임철호		김학주	손세영	임연수	최세우	야구(후라) 회장 장민재
여철우	안 일		정연우	총 무	김현덕	송순철	장민재	하재갑	바둑(이사돌) 회장 김인철
정영환	여철우	수석부회장	정영석	박태진	노상우	안형수	장한중	황두경	등산(산우애) 회장 한예식
한승철	유금준	태창업	정영환						



어디서 무엇을

은사소식

박경원=(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리 쌍용2차아파트 177동 101호, 031-266-5141

시카고 지역동창회

김봉현(5회)=6245 N. Kirkwood, Chicago, IL 60646. (H)773-736-0936. (O)773-583-3558
박정채(6회)=2523 Hunter Dr. Arlington Hts., IL 60004. 847-253-4610. 847-362-4610
장태근(6회)=1818 Roosevelt Rd. Broadview, IL 60153. 708-344-7052
김진환(8회)=1756 HIGHLAND AVE. WILMETTE, IL 60091. (H)847-251-8425 (O)312-360-4192
조석재(9회)=8815 W. GOLF RD #10-I, NILES, IL 60714. 847-803-0603. 312-889-0425
김석홍(11회)=2795 VALLEY FORGE RD. LISLE, IL 60532. 630-369-9438. 630-252-6567
배준환(11회)=8247 EYNSFORD DR. ORLAND PARK, IL 60642. 708-460-4521
이근보(12회)=3237 MALLARD DR. HOMEWOOD, IL 60430. 708-957-3614
전용찬(12회)=9237 S. KEELER OAK LAWN, IL 60453. 708-422-0965. 708-425-0993

허남석(12회)=231W. COUNTYLINE RD. BARRINGTON HILLS, IL 60010. 847-381-3302. 847-745-8100
이수우(13회)=1735 CHARLES AVE. ALGONQUIN, IL 60102. 847-658-7620. 847-658-8222
박영범(14회)=6536 N. TROY ST. CHICAGO, IL 60645. 773-743-0926
최윤환(14회)=1044 OAK RIDGE Glenco, IL 60022. (H)847-835-0952 (W)847-299-3360
곽문호(15회)=1900 IVY LANE MOUNT PROSPECT, IL 60056.

산에서 되찾은 생명

건강을 안겨준 산과의 인연을 말하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하자 소박하게 살려던 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영어(圍圉)의 몸이 되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사슬에서 풀

실히 먹고 지시대로 무리를 피하면서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른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도 언젠간 갈 수 있고, 주위에 사람이 없



남백우
22회
(주)동일건축

려 세상에 나오던 날 나에게 다가선 것은 캄캄한 앞날과 눈물젖은 아내였다. 덩그러니 커버린 자식들의 눈망울이 전부였다.

이미 몸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긴 폐결핵 3기에 늑막염 허리디스크 악성치질 등과 싸워야 했다. 목에서는 피가 터져 나오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허리, 20kg 정도 줄어든 체중으로 기력을 거의 상실해 폐인에 가까웠다.

보건소에서는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과로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더구나 적게 먹어야 당뇨병을 고치고 잘 먹어야 폐결핵을 다스릴 수 있으니 잘 대처하라는 힘든 과제를 주면서 입원을 권고했다. 나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착



한때 사업실패로 좌절 몸쓸 병언어 폐인 직전

어 좋으며 돈이 없다고 해도 설움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좋다. 특히 처자식에게 마음 쓰지 않아서 더욱 좋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멧모르고 좋아하며 오르던 산을, 30여 년이상 잊고 살았던 산을, 생활에 쪼들고 병으로 지친 몸이 된 후에야 그런 산에 나를 맡겼다.

몇 발작 걷다 쉬고 걸다가 또 쉬고,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으며 내일도 걸겠다며 미친 듯이

산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약을 복용하면서 산을 찾은 지 두서너 달쯤 되니 다리에는 제법

눈 비 올 때도 산으로 서서히 건강 회복 재기

힘이 붙었고, 열 달을 좀 넘으니 몸은 기적적으로 정상을 찾았다. 폐결핵 늑막염 허리디스크는 물론이고 치질과 당뇨도 정상이라며 의사가 놀라며 판정을 내렸다. 꿈만 같았다.

산을 오른 지 어언 35년, 산에 깊이 빠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건강 때문에 산에 오르지 않는다.

오늘 갈 산, 내일 가야 할 산에 마음이 들떠 지형도를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냥 행복해 하는 '팔푼이'가 됐다.

수많은 산을 어떻게 오를 것인가를 걱정하고 준비하면서 '산사

술'에 서서히 얽혀들었다. 워킹은 물론이고 암벽과 빙벽등반까지 배우고 익히면서 제법 산속에서는 이런저런 흥내를 낼 수 있는 '산학교'의 성실한 학생(?)이 되었다.

산꾼이라면 한번쯤 도전하고 싶은 외국의 고산, 거벽을 한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산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산 속의 '어린 학생'이 되어 산이 나에게 내어준 속

'한국의 산총서' 발간 준비에 많은 시간 투자

제인 「한국의 산총서(山叢書)」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살아온 날들 중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생활 속에 산을 선택한 것이 제일 잘했다고 자부한다.

이런 나에게 둘둘산우회(22회) 회원들이 은산(隱山)이란 아호를 붙여주었다. 너무 과분한 것이라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더욱 정진하여 은산이란 아호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산에서 건강을 찾고 생명을 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우리 회사(주)동일건축의 오봉석 사장님(15회)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생활해주시 못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항상 건강한 웃음으로 살아줘 감사사를 보낸다.

847-699-9913
김명수(15회)=Box 2518 RFD Long GROVE, IL 60047 (H)847-438-4008
김무정(16회)=612 W. NICHOLS ARLINGTON HTS., IL 60004. 847-590-5951. 773-674-6040
문내연(16회)=1853 PRAIRIE ST. GLENVIEW, IL 60025. 847-998-5816
신지재(16회)=11301 WILLOWCREEK LN. ORLAND PARK, IL 60642. 708-349-1130
유정호(16회)=6785 S. COUNTY LINE LN. BURR RIDGE, IL

60527. (H)630-325-4288 (O)773-866-1930
조자영(16회)=1330 PEARSON RD. GREEN OAKS, IL 60048. 847-816-9228. 847-937-4289
조재희(16회)=6507 N. ALBANY CHICAGO, IL 60645. 773-743-6263. 312-633-5976
홍정건(17회)=461 CLOVER AVE LAKE FOREST, IL 60045. 847-295-8023
이형기(18회)=381 E. MEADOW LN. PALATINE, IL 60067. 847-397-9711
조삼래(18회)=2310 E. BARBERRY CT. ARLINGTON HTS, IL 60004

(H)847-255-5802 (O)847-583-1700
박진철(19회)=3845 FARGO SKOKIE, IL 60076 (H)847-679-1757 (O)630-285-1212
강대철(20회)=1101 DICKENS WAY #F SCHAUENBERG, IL 60193 (H)847-352-0532 (O)847-991-5030
김중환(20회)=9286 W. IRVING PARK RD SCHILLER PARK (O)847-678-5960
박영준(20회)=665 STEWART AVE. NORTH AURORA, IL 60542 (H)630-801-0571 (O)847-647-2128

박종원(21회)=6226 N. KEELER CHICAGO, IL 60646. (H)773-283-2766
김정수(22회)=5418 W. RIDGEWOOD CT #1-W CHICAGO, IL 60615. (H)773-363-0964. 847-981-1464
정원조(23회)=(H)847-540-7371
김우갑(26회)=12 E. CANTERBURY LN. BUFFALO GROVE, IL 60089. (H)847-419-1103 (O)847-363-5246
신광해(26회)=441 WHITE PINE BUFFALO GROVE, IL 60089. (H)847-537-4567 (O)847-788-9990

제 4 회

金尙聖=4월 13일 동서대학교회에서 장남 결혼
金重根=(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동 1016-17 대우동삼아파트 102동 1005호, 051-742-5742
吳鍾煥=4월 14일 별세

제 7 회

姜大昊=5월 17일 별세, 부산대학병원
盧聖杓=5월 26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차남 결혼

제 8 회

成亥源=6월 9일 양정성당에서 아들 정진군 결혼

鄭相賢=5월 4일 강남문화센터에서 장남 재우군 결혼
朴雨翔=6월 1일 타워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남 성민군 결혼
朴宰範=(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가든스위트 2동 1903호(전화변동없음)
金守敦=(자택이사)서울 강서구 방화1동 793 방화현대아파트 101동 603호, 02-661-3755
盧哲容=(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상현동 168-1 현대프리미오아파트 103동 403호, 031-266-2043. 011-9924-2041

제 9 회

金利熾=(자택)경기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488 늘푸른백산아파

어디서 무엇을

트 119동 401호, 031-206-0773. 011-9908-0773

제 10 회

朴址浩=부산 서구 남부민2동 94-300 2층, 018-291-0406
朴野原=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53-1 주공아파트 106동 304호, 051-893-2610. 016-873-8898
張炳泰=부산 해운대구 좌동 효성코오롱아파트 106동 803호, 051-731-1963
崔炯伯=5월 25일 서울 만리장에서 차남 결혼

崔長勳=5월 12일 공주시 금성동 아리랑웨딩홀 2층에서 차녀 결혼

제 13 회

알림 △동기회 사무실 이전
부산 중구 중앙동6가 20-32 세창빌딩 2층 202호(부산대파트부근). 전화 : 051-244-0013 팩스 : 051-242-5913

鄭榮一=(이전개업)가마명가(영양술밥, 소·생갈비 일체), 부산 금정구 서2동 210-20, 051-521-3406
李相茂=4월 13일 서울 상제리제웨딩홀 1층에서 차녀 은경양 결혼
徐鍾學=4월 25일 해운대 중일교회에서 차녀 회영양 결혼
李日照=4월 26일 연산동 목화에

식장에서 아들 정환군 결혼
金正泰=4월 26일 부산롯데호텔 3층에서 장녀 예리양 결혼
鄭榮一=(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1159-20 (36/1)
金龍雄=5월 14일 별세 (자택)경기 안산시 고잔2동 주공아파트 912동 802호, 031-482-9631

제 17 회

金基道=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5월 1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5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초창, TV생방송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 7면에 계속 >

< 6면에서 계속 >

제 11 외

金鍾述=회춘장수원 개업. 부산 북구 구포1동 716-1 (9/3). 051-333-1328
姜周德=5월 4일 웨딩프라자에서 장녀 결혼
金在德=5월 12일 올림픽예식장에서 막내 딸 결혼
吳吉勳=(자택이사)부산 남구 대연2동 1619-313. 051-632-3858

제 12 외

朴長根=4월 24일 지병으로 별세. 삼성의료원
金九化=5월 7일 모친 별세. 고대 암남 병원
金尙茂=(자택이사)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306. 054-283-2737
金秀元=5월 5일 새마당예식장에서 딸 결혼
金容鎬=3월 14일 화촌한식집에서 정년퇴임한 세동기 교장선생의 위로잔치 때 경문회 회장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文俊華=3월 22일 부산본가에서 부친 별세
朴文基=4월 26일 부산의료원에서 부친 별세
朴殷倫=(자택이사)부산 사하구 장림2동 현대타워 1907호. 051-992-4803
朴正潤=(자택이사)전남 구례시 마산면 황전리 571-9. 061-782-2794
白彰植=5월 5일 마리나센터에서 차녀 결혼
尹學根=2월 28일 서울 파레스호텔에서 재경동기회 2002년 정기 총회대 회장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張永吉=4월 2일 서울에서 딸 결혼
張一坤=태국에서 일시 귀국하여 동기회사무실에 방문. 4월 27일 롯데호텔에서 5녀 결혼
許禎旭=4월 27일 서울에서 아들 결혼
黃活元=5월 4일 서울 코스코타워 3층 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제 14 외

李相植=5월 4일 부산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장녀 결혼. 051-291-7662
周甲鎭=한진미술학원 대표. 5월 18일 목화예식장에서 차녀 결혼. 051-552-6036
朴春濟=춘인상회 대표. 5월 26일 부산호텔 예식부에서 딸 결혼.

제 27 외

安炳讚=한국은행 1급으로 승진
崔正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전보. 02-724-1433
金敬鍾=5월 4일 부친 별세
金甲煥=4월 25일 부친 별세
金秉龍=동일고부벨트(주) 이사
梁太種=동아대학교 독일어 정교수 겸 수사학교수. 051-200-7097. 018-565-7097. (자택)051-968-9680
愼壬晟=4월 10일 별세.
崔景龍=(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아파트 210동 1603호. 051-703-5067. 011-801-5067
裴基容=(주)제이엠글로벌 연계 지점장.
李永洙=5월 13일 부친 별세. 011-

051-646-7030. 051-256-9356
韓相高=(주)영풍정밀 전무이사. 051-523-6677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28 영남아파트 105동 1802호. 051-703-1610
金靑秀=(자택이사)부산 수영구 남천동 558-2 반도보라아파트 4동 611호. 051-628-3608
沈英燮=(자택이사)서울 송파구 가락2동 199 프라자아파트 1동 505호. 02-431-5827. 016-278-1870. e-mail:yshim@qrio.net

제 15 외

吳鍾煥=(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수안동 수안아파트 B동 109호. 051-556-5719. 016-898-0629
具亨祐=근무지 변경. 부민상호저축은행(주). 부산 동래구 명륜동 647-1
趙南郁=5월 4일 에텐예식장에서 차녀 해진양 결혼
李致永=5월 12일 대구 신암 천주교회에서 아들 명철(비오)군 결혼
任炳徹=5월 18일 전남 강진 궁전예식장에서 차남 규환군 결혼

제 16 외

姜尙權=3월 12일 모친 별세
李鍾喆=부산시의원. 3월 27일 MBC시사포커스에 출연 부산시 수돗물 식수원 대책토론회 참석. 5월 28일 용호동 시의원출마. (선거사무소)051-611-8470
李善揆=(주)SK 부사장으로 승진. 052-270-2016
姜軫中=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실장. 4월 14일 장녀 소영양 결혼
金正直=경도상사 대표. 장남 도형군 결혼
金忠吉=차남 형보군 결혼. 5월 바둑정기대회시 결혼터
鄭祐光=하동우체국장. 장남 창희군 결혼
張肯相=용마기별남시대회에서 녹조 준우승 차지
曹吉宇=부산시의회 부의장. 장녀 영실양 결혼. 동래2선거구(기존 온천동에서 사직동추가)에서 시의원 출마. 051-557-3955
李滿夫=장녀 정주양 결혼
田鍾植=보해양조(주) 부산경남 지점장으로 취임. 055-381-9871
李東俊=뉴욕에서 간암으로 별세
金政均=호주사업정리 귀국. 장남 현수군 결혼. 한이현 상견례(42명 참석)시 결혼터 겸해 산내가에서 갈비점심 제공
韓利憲=부산시장 출마. (선거사

9048-8675
姜基哲=히스램브트. 02-732-0123. e-mail:kckang0123@hanmail.net
姜成輔=4월4일 척추카리에스로 허리 수술. 2~3개월 정도 요양 예정
姜亨九=오는 8월 14~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인전 예정. 자화상 60점
金起燾=(주)럭키생명 준법 감사실 02-317-9347. (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14. 02-586-5301. 019-252-4623. e-mail:khkim@luckylife.co.kr
金相龍=조흥은행 본부 신용관리실 관리역. 02-2115-9928. (자택이사)서울 양천구 신정7동 목동 2차 레미안아파트 101동 301호. 02-6092-9928



무실)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3층. 051-442-2255
玄勝夫=일본어회화(왕초보도 가능한) 책 출판. 011-839-1662

제 18 외

姜大圓=부산 본부세관 관세지원과장. 051-460-6110
金東善=광국실업 부사장. 055-343-1177
金萬根=세환전자 대표. 055-275-4300
南斗鎭=금강예식장 대표. 051-554-7500
成時濟=부산 동래구 사직2동 한신아파트 105동 202호. 051-501-7340
孫天益=경남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104동 405호. 055-386-3979
安昌範=동의대 한방 병원장. 051-850-8610
梁玎滿=미라보관광호텔 대표. 051-866-7400
柳鍾又=부경대 교수. 051-620-1396
張壽一=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崔康登=전공산업 대표. 051-261-2911
黃大淵=부산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101동 1701호. 051-203-8838
黃明吉=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6 대림아파트 102동 301호. 051-701-8393
河榮一=다대고등학교로 전근. 016-581-4172
李香雨=부산 북구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103동 503호. 016-9315-4949
徐在鳳=M.S.C. 대표이사. 011-9719-7325
陳湘永=부산 사하구 괴정1동 935-14. 051-291-7429

제 19 외

李哲元=창동고등학교 교감. 서울 도봉구 창동 694-10. 02-3499-671. e-mail 12c38w@korea.com



金在淵=피치텔레콤(주) 상무이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3 삼광빌딩 8층. 02-925-1115
金鍾煥=(자택이사)서울 양천구 신정6동 신시가지아파트 1333동 1306호. 02-2642-7683
金孝燮=(자택이사)경기도 분당 파크 TOWN 118동 1403호
金鍾喆=현대MOBIS 이화모들. 031-351-9191. (자택이사)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문화촌 현대아파트 103동 701호. 02-6748-4928
金勳鏞=아이비즈닷컴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서울 서초구 서초

제 21 외

尹相喆=한진중공업(주) 특수선 사업본부장. 051-410-8000
金準模=(자택이사)051-808-8310
金志浩=(자택이사)동의대 퇴임. 051-507-2924
崔守明=화인택냉동(주) 대표이사 취임. 051-264-6400
姜洙慶=(휴대폰변경)016-9308-9263
安吉鴻=5월 2일 모친 별세. 011-848-1702
陳泳吉=재L.A. 부인 별세
崔元鍾=한국허치슨터미널(주) 사장 부임. 부산 동구 좌천동 1116. 051-630-8213. 011-9748-5801
崔洛桓=6월 16일 목화예식장에서 2녀 결혼. 051-203-8547

제 23 외

朴守甲=동기회 회장. 용마산악회 부회장. 부산공인노무사 소장. 051-465-4141
鄭琪泰=경야회 회장. 빅토리해운(주) 이사. 011-872-9555
朴政本=(자택이사)경남 김해시 외동 883 일동한신아파트 127동 301호. 011-9506-3538
朴春根=(주)대우건설 황령터널 사업소 소장. 051-627-8517
梁熙澤=(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28동 1301호. 051-753-1454
林在植=(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다대동 1552-19 성원아파트 102동 1204호. 017-850-1265
鄭鐘毫=(주)대우자동차 품질관리팀장. 051-811-4100. (자택)경남 양산시 웅상읍 경보아파트 3동 913호
韓進洙=동아일보 영남본부장. 051-464-7870
許謹昌=원창지관(주) 대표이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50-3. 017-594-7686
黃玄鈺=부산도시가스(주) 관리담당상무. 051-607-1006. (자택)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33동 2003호
金鍾澤=(주)범일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부산 동구 초량3동 1147-14 국제오피스텔 1303호. 051-469-9771. 011-749-5460

제 24 외

金學聖=하이닉스 상무. 5월 16일 부친 별세. 02-3459-3166
金性彦=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서울로 자택이사. 051-200-7162

동 1697-14 서우빌딩 2층. 02-592-0417
南世圭=(자택이사)대전 서구 만년동 강변아파트 110동 505호. 042-483-6059
白聖來=조선해운 이사. 02-773-2244. (자택이사)서울 노원구 하계동 미성아파트 6동 705호
吳龍煥=동부화재 법무팀장. 02-3011-3600. (자택이사)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 3동 1401호. 02-6472-4363. 019-239-5000
尹大洙=(휴대폰변경)019-558-0726
尹元浩=(휴대폰변경)019-9757-5288
李敏富=(자택이사)서울 송파구 송파동 삼성래미안 107동 1502호. 02-421-3242
李宰龍=6월초 분당에서 골프샵

박성화=육군대령. 동의대학교 학훈단장 부임. 051-890-1114
愼重源=신영증권(주) 이사. 4월 27일 모친 별세. 051-201-1417
元喜光=협성해운(주) 부장. 이사 승진. 051-463-1451
黃海龍=부산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홍보실 홍보기획팀장.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다대2동 현대아파트. 051-640-9131

제 25 외

尹辰鎬=운약국 대표. 5월 22일 모친 별세
全燮泰=카스코손해사정(주) 이사. 051-467-0932~3
玉東薰=모던부동산컨설팅 소장.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307호. 051-501-2571. 2581. 011-9543-3135
崔景鎬=모던부동산컨설팅 이사. 017-551-9687

제 26 외

姜仁伯=본부동창회 부회장. (사무실 이전)동흥실업 대표. 부산 사하구 다대동 370-14. 051-263-2341~4. 팩스 051-263-0321. 5월 12일 새사옥 1층 구내식당에서 회사준공식 가짐
崔明海=동기회 총무. 시앤지테크(사무실 이전)부산 사하구 하단동 701-9 삼성하이츠원룸 502호. 051-294-9044. 팩스 051-294-9045. 011-831-8937

제 32 외

李官雨=(주)J&R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부산 연제구 거제2동 1091-10 경기빌딩 4층. 051-507-2888. 팩스 051-507-6067
秋圭煥=신방물류(주) (사무실 이전)서울 중구 무교동 32-2 남강빌딩 1903호. 02-776-3885. 팩스 02-776-3925. 011-343-9098. e-mail:bbexp01@komet.net

제 33 외

金武成=5월 28일 부친 별세. 011-9050-6376

金鍾旭=5월 23일 부친 별세

제 34 외

金知俊=(개업)신라농원. 양재꽃시장. 02-575-1644. 019-648-0131. 0505-900-9131

제 40 외

文炯旭=재경동기회 회장. 임호성 국회의원(28회) 보좌관. 02-788-2307. 016-364-9918

개업 예정. (자택이사)경기 분당 구 정자동 한솔마을 402-409. 031-711-6194
李相勳=영국에서 사업 예정. 4월 27일 출국
林車榮=016-536-4051
주정기=(주)미래세움 인테리어 사업부 상무이사. 02-3446-0797. 018-365-8446
崔龍一=동양증권 논현지점. 02-544-2507. 019-320-7330
全京辰=3월 31일 부친 별세
曹曠煥=(주)동희산업 기획실 상무. (자택이사)경기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아파트 633동 403호
黃三鎭=(이메일변경)wsjin@bok.or.kr

300여 가슴마다 사랑·감동·그리움 듬뿍

모교는 잘 가꾸어진 공원이었다. 싱그러운 솔바람을 타고 번져나는 신록의 향기에 묻힌 교정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들만 저마다 변한 모습으로 '마음의 고향'에 와서 그때 '청운의 꿈'을 피워올렸던 창공을 허허로이 쳐다본다.

그립고 보고 싶던 친구들이 서로 "반갑다"며 왁자지껄 떠드는 바람에 우리가 흠커밍데이축제 한가운데에서 있음을 후닥닥 깨닫는다. 그리고 어제 저녁 한마당잔치가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4월 27일 오후 6시30분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대연회장.

28일까지 이틀 동안 펼쳐질 제26회동기회 졸업30주년기념 흠커밍데이축제 전야제가 막을 올렸다. 모교(경남중·고교)와 자갈치시장에서 연출될 페스티벌(?)을 기대하면서...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인과 함께 참석한 300여 명의 용마가족들은 흠 가득 감동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이역만리 미국 등 해외 동문들은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4월27일 저녁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6회동기회 흠커밍데이축제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동문·가족들

제26회동기회 졸업30주년 흠커밍축제

박동열 본부회장, 4명에 공로패·금배지 "아직도 청춘"이라며 춤·노래·장기 펼쳐 모교 기념촬영 후 자갈치 색소폰 파티로 마무리

스에 담아 보내와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특히 행사에는 박경원 당시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25명의 은사와 박동열 본부동창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 한병조 사무국장(13회) 김병수 총무부장(22

회) 등이 초빙돼 아름다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병욱 동문이 사회를 맡은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국민의례·유공자표창·김성환·최낙준 부산 및 서울 회장 인사·박동열 본부회장 격려사·박경원 은

사 축사·축배·모교발전기금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동열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강인백 김경익 동문에게 공로패를, 이성구 정수진 동문에게 금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2부 버라이어티쇼는 반별 노래 및 장기자랑과 각설이타령, 방홍기 커플의 '흔 뻗는 열창'과 권중기 커플의 '끝내주는 춤', 혼성의 디스코 경연 등이 아우러져 열정 한마당을 이뤘다. 뒤풀이는 서울 동문들이 목을 로드 비치호텔 룸가요텍에서 새벽 2시까지 마시고 흔들며 젊음(?)을 불태웠다.

뒷날 28일, 작취미성의 동문들은 이른 아침 호텔식당에서 해장국으로 쓰린 속을 달랠고 모교로 직행해 기념촬영을 한 후 봄의 교정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일행은 자갈치시장의 횃집에서 점심식사 겸 단합회를 열었는데, 이병욱 동문의 색소폰 연주 속에 '낮술'이 녹아들어 또 한 컷의 추억을 아로새겼다.

가족동반 검단산에 재경29회 봄 산행대회

제29회재경동기회는 지난 5월 19일 경기 하남시 근교 백제 때 검단산(650m)에서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벌였다.

조기창 산우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에서 동문·가족 40여 명은 가파른 경사와 정상에 이르는 다채로운 길 등으로 특이한 산세의 묘미를 만끽했다.

삼공회, 장산에 올라 초파일 폭포사도 '파시'

삼공산악회(제30회동기회) 제83차 등산대회가 지난 5월 19일 해운대 장산 일원에서 열렸다.

문장호 산악회장이 리드한 산행에서 가족동반 15명은 천성일 산행대장을 따라 정상에 거뜬히 올랐다.

일행은 당초 장산농장~기장 멀치축제 참관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하산 무렵 비가 오는 바람에 장산 역새군락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장산마을~폭포사로 내려왔다.

연회비 조속납부 독려 재경 37회, 4월 월례회

제37회재경동기회는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 서울 무교동 중국성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

남무현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내년 흠커밍데이행사 준비위원회 구성과 연회비(120,000) 납부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조직활성화에 앞장설" 제39회동기회 봄 정례회

제39회동기회는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만포장횃집(이승현 동문 운영)에서 봄정례회를 열었다.

안영준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활성화와 동문 발굴운동 등 현안문제를 다뤘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반가움을 가누지 못해 2~3차 뒤풀이를 벌였다.

노년의 지혜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힐끔는 소리, 옛날의 내자랑 그리고 근소릴란 하지 말고 그저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물거들랑 가르쳐주는는 하나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 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젊은이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원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리요.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늘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돈, 돈의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하여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오.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나게 만들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듬뿍뽀뽀 써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생전의 죄값을 치르고 연옥불을 사면 받는 비법이리요.

'재경경팔통신' 제02-5호 (2002.5.18)에서 옮김

"청룡기 값진 준우승...장하다!"

모교, 광주일고와 결승서 후회 없는 명승부전

"우승 부럽지 않은 값진 준우승이야! 참 잘했어, 장하다!" 지난 5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제57회 청룡기 전국교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

경남고(교장 김향운·13회)는 이날 광주일고와의 일대 회전에서 비록 9-18로 졌으나 열광의 응원전을 펼친 1,300여 재학생과 TV로 관전한 수많은 용마가족 등은 '후회없는 명승부'로 매김하고 '우승 이상의 준우승'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연희 감독(17회)이 이끈 모교팀은 이날 광주일고를 맞아 3회초 3-2로 역전극을 연출했으나 타선에 불이 붙은 광주일고의 말공에서 재역전 3점 홈런을 허용한 것이 불운의 불씨가 됐다. 게다가 7회말에 대거 7점을 맞고 이후 8회말까지 5점을 더 내줘, 4

~9회초 6점 추가로는 재역전을 이룰 힘이 되지 못했다.

투수 김유신 대회 톱스타 조동현은 감투상 받아

안팎에서 크게 기대하는 장신의 왼손 투수 김유신군(1학년)은 이번 대회 톱스타. 김군은 마운드뿐만 아니라 2회전 결승 2점홈런과 8회전 동점타 등으로 팀의 결승전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투수 조동현군은 감투상을 받았다.

경남중 부산대표로 본선에 전국중학야구 예선서 우승

경남중(교장 강무기)이 지난 5월 2일 폐막된 제4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예선대회에서 5승1패를 거둬 우승을 차지, 오는 7월 1일 열리는 본선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한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 하단 전체(8.2cm x 25cm) : 400,000원
 - 하단 1/2(8.2cm x 12cm) : 200,000원
 - 하단 1/4(8.2cm x 6cm) : 100,000원
- 내용
 -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 경남중고동창회 (051)245-7551~2

나를 바꾼다는 것

역사도 사계절이 있는가
한창 바뀌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그 자리에 와 있다
나만 옳고 남은 다 그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를 바꾼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GOLF · 콘도 · 헬스 회원권 매매

아시아드, 에이원C.C 회원권분양주관사
GOLF SET 도소매 중고채 고가매매
서면GOLF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4-13
전화: (051)803-0654~5, 804-1811, 805-0707
807-0707, 817-0606~8, 819-0606, 819-0707
080-201-7777, FAX: 804-1810
H P: 011-854-0707 대표 여성 열(17회)
http://www.smgolf.net
E-mail: seomyengolf@hanmail.net
충무GOLF : 서구 충무동1가 10번지 여성군(24회)
전화: (051)241-4344~5, 254-0707, FAX: 241-6643